

민주당 텃밭 경선이 본선...승부 가를 권리당원 모집 사활

지방선거 전남만 조기 과열 왜?

선거법 위반 속출 8건 조사·수사

나주시장 선거 당비 대납 의혹

非민주당 단체장 고흥·장흥군

조기 예비 경선 결정·논의

체육회장 등 사직 부작용도 촉각

2022년 3월 치러질 대통령선거보다 3개월 늦게 치러지는 6월1일 지방선거가 전남에서 유독 빠르게 달궈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라는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각 후보자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 아래 당내 경선과정에서 공천권 향배를 가를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면서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조기 과열된 선거전에 전남도청 고위공직자, 산하기관장, 체육회장 등 중량급 있는 공직자들이 앞다퉈 뛰어들면서 부작용을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시장·군수 선거' 전남 곳곳에서 조사·수사 = 23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8건이다. 나주·구례·고흥·장흥·함평·신안 등 6개 지역 단체장 선거를 두고 선관위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수사기관 이첩, 서면 경고, 과태료 처분 등 조치가 이뤄졌다. 권리당원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나주시장 선거의 경우 선관위 위는 표면적으로 "당비 대납 사실은 확인되나 특정 후보자 측과의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선 "나주시장 자리에 뜻을 둔 입지자만 15명"이라며 "최소 2-3명의 후보자 측이 당비 대납 등의 의혹에 휩싸여 선관위 조사가 진행 중으로 선거가 조기 과열돼 불뿔이 어디로 뿔지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군수 후보자가 선거구 주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구례군수 선거의 경우 선관위 조사에 앞서 경찰 내사가 진행된 터라 선관위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군수 선거에서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가 시중에 풀려 선관위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며, 장흥군수 선거와 관련해선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가 일부 확인돼 선관위가 서면 경고를 내렸다. 비(非)민주당 단체장 지역에 대한 조기 예비 경선도 선거전 과열 요인으로 꼽힌다. 고흥과 장흥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비민주당 단체장 지역으로, 고흥의 경우 5명의 후보자 합의와 지역위원회 승인을 거쳐 전남도당이 올 9월 조기 예비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장흥 역시 조기 경선 논의가 민주당 군수 후보자간 이어지고 있다.

◇선거 나서는 공직 인물 두고 엇갈린 시선 = 단체장 선거만이 조기 과열되면서 공직 위치에 선 중량급 있는 인사들의 사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나주시장 선거에 나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도 정년을 3년가량 남겨두고 최근 사표를 던졌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처장 역시 나주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 사퇴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역시 영암군수 선거를 위해 이달 말 옷을 벗는다. 산하기관에서는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순천시장 선거에 나설 뜻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사장은 "평생 민주당에 몸담아왔다. 출마 결심은 굳혔으나 8월 말 임기 종료까지 현직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

체육인들의 시선은 김대중 무신 첫 전남체육회장에게 쏠려있다. 김재무 전남체육회장 역시 광양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다졌으나 체육인 등 주변 시선에 부담을 느껴 거취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취임한 김 회장은 체육회장 선거기간 내내 "체육회장 자리를 정치인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주변에 밝혀왔기 때문에 중도 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회장이 연내 사퇴할 경우 체육회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내년엔 사퇴하면, 대형 체제로 체육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김창준 광주시 초대 민선 체육회장이 지난 3월 취임 1년 만에 건강을 이유로 사퇴한 터라 김재무 회장이 중도 사퇴를 결정할 경우 초대 시·도 민선 체육회장 낙마라는 불쌍 사나운 상황을 불러오게 되는 점도 그의 거취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사람이 높은 세상 만들겠다”

추미애 대선출마 선언

“지대개혁으로 특권 해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63)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이 높이는 나라' 깃발을 내걸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파주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출마선언식을 열어 "대통령이 돼 촛불시민에게 약속한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촛불정부의 탄생을 부닥드렸고 여러분의 힘으로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 "이제 촛불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주당부 4기, 정권 재창출의 출발점에 섰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추미애의 깃발을 들고자 한다"며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장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면서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습대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대개혁을 통해 특권을 해체해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 추 전 장관은 또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대통령이 되겠다"며 "당 대표 시절 주장한 '신세대 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겠다"고 역설했다.

추 전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우셨듯,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정공법으로 싸워이겠다"며 "추미애의 정공법은 정의, 공정, 법치이며 이는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경 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출정식 후 토크쇼에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봤고 궁금하지도 않다. 볼 필요도 없다. 당시 검사들은 감히 윤 총장 밑에서 그러한 정보를 발설하거나 수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알고도 문건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위 '추-윤 갈등'의 재연으로 윤 전 총장만 반사효과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실에 기반하지 않은 실체 없는 프레임"이라며 "이제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다. X파일이고 뭐고 할 게 없다"고 했다.

이날 출정식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초청 내빈은 없었고 이례적인 정치인 출사도 생략했다. 행사를 생중계한 유튜브 '추미애TV' 동시 접속자 수는 1만2000여명에 달했다고 추 전 장관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송영길 “윤석열 배우자 검증, 조국보다 더 심하게 받아야”

민주당 'X파일' 의혹 공세 강화

“야당, 내부서 자료 정리 했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 의혹에 대해 반격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X파일에 대해 "자체 내부에서, 검찰총장 인사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특히 "법적 지위를 갖고 국가 지원을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한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다. 자기가 조국 전 장관 부인과 가족에 대해 수사했던 정도보다 (검증받는 강도가) 더 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다들 2일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판결이 난다. 동업자는 구속됐지만, 본인만 빠져나왔다가 이번에 기소됐다"며 "윤 전 총장이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기소 하면서 제기했던 것이 경제공동체 이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인과 장모의 금전 관련 문제가 확인된다면, 윤 전 총장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복당을 앞둔 홍준표 의원을 가리켜 "홍준표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을) 가장 잘 알 것이다. (윤 전 총장이) 검찰의 후배이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 아는 분이 바로 홍 후보"라고도 했다. 야당은 송 대표가 X파일 의혹제기 시점보다 먼저 '윤석열 파일'을 거론했던 것을 겨냥해 책임론을 폈지만, 민주당이 이날 야권 내부로 화살을 돌리며 국면 전환에 나선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검증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파상공세를 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윤 전 총장은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다"며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10원짜리 몇 장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은 명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타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었다"며 "윤 전 총장은 국민의 검증 앞에 선 대선주자"라고 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윤 전 총장은 야당발 X파일 논란에 여당을 엮어서 전언정치와 대변인 사임 등 아마추어 논란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성철씨로부터 파일을 받아 공개하는 것이 논란을 종식시키는 방법"이라고 몰아세웠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씨에게 충고 한마디"라며 "찌질하게 과문서, 정치공작 운운하지 말고 검찰에 고소하라. 후배 검사들이 어렵히 알아서 잘해줄 것"이라고 썼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집합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